

천혜자원 넘치는데 해양관광 주도 못해



④ 해양관광 기반시설 태부족

접근성 낮고 편의시설 없어 관광객 유인 어려워

더딘 정부 지원에 민간투자 남발...자연훼손 초래

전남은 섬, 갯벌, 해안선, 해변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해양관광 전반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크루즈를 통한 외국 방문객은 물론 섬, 갯벌 등을 찾는 국내 관광객 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국내외 방문객 유인 프로그램 마련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딘 정부 투자로, 민간투자에 의존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지나친 혜택을 남발하거나 자연자원의 훼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서 여수항, 목포항의 2014년 크루즈 여객은 각각 400명에 불과했으며, 2020년에는 3만9000명, 2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14년 59만1000명이었던 제주는 2020년 209만3000명, 24만5000명이었던 부산은 66만3000명 등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크루즈 시장의 성장과 국내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22%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여수항 등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서 연안여객 허브역할을 하는 목포, 여수, 완도 등 전남의 무역항 연안여객 증가율은 1%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연안여객이 각각 304만2000명, 68만명, 58만2000명인 목포항, 여수항, 완도

항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연안항인 거문도항이 13.1%, 녹동신항 11.0%, 진도항 8.3%, 흥도항 5.6%, 흑산도항 2.6% 등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민선 6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섬의 가치 재발견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2633억원을 통해 24개 섬에 대한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편의시설 설치, 경관 개선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매년 48~11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전남도와 시·군은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야 하는 부담도 크다.

그러나 문제는 방문객 증가를 위해선 이들 섬에 대한 교통편이 그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섬 여객 준공영제 도입, 섬 운임 할인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섬 여행자의 여객선 운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비 14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최초로 항공기를 이용한 전남 섬 투어가 시작되고, 전남도가 2025년까지

845.8km에 달하는 '요트 마린 실크로드' 조성에 나서는 등 여행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추진중인 해양중합휴양지, 해양마리나, 리조트 등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 2298억원), 마리나 인프라 구축(5200억원) 등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개발과 함께 보존 가치가 높은 섬에 대한 별도의 방안, 섬 주민 감소, 무인도화에 대한 대책 등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다. 2165개의 섬만이 아니라 1044km의 갯벌, 6743km의 해안선 등 전남의 해양수산자원의 분석과 장단기 보존 및 개발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시급하다. 무분별한 민간 투자로 해양관광의 근간이 되는 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책임연구원은 "섬, 해안선 등은 계획적인 공공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민간에 내맡기면서 해안 경관, 섬마을 일상 등 도시민들이 보고 경험하고자 하는 자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탄핵 인용뎨 파면...대통령직 물러나고 기각·각하 결정뎨 즉시 대통령직 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가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특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데 이의가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때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기각 결정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된다.

다만,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미 현재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이 지명자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해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 실무 능력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남편 김현룡(52·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이에 2녀.

▲서울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현)

/연합뉴스

대책위 오늘 ‘내부 보존안’ 논의 원형 복원 후 방송실 등 특화 5·18 당시 재현하기로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여론 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대선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다.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3차례 위원장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옛 도청 내부 보존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내부 보존안은 5·18 사적지로서 원형 복원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가미하고, 특히 당시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방송실과 상항실 등은 특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단과 복도 형태만 남은 도청 본관 내부는 원형 복원 후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별관과 민원실, 상무부 등도 원형을 보존한 뒤 5·18 당시를 재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내부 보존안 논의에 앞서 옛 전남도청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책위는 앞서 외부 보존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했다. 외부 보존안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활동에 기초해 역사적인 공



친환경차 카셰어링 시범사업 발대식. 친환경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복합 카셰어링 시범사업 발대식이 6일 오후 광주 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경규 환경부장관,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간 복원 방안으로써 계획안을 마련했다.

옛 도청 본관과 별관 3·4층을 잇는 연결 통로를 복원하기로 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된 연결통로는 시민군이 보조를 섰던 통선이다.

시민군 최후의 퇴로였던 옛 본관과 민원실 2층 연결통로도 복원된다. 옛 도청과 전

남경찰청 터 사이의 문화전당 방문자센터는 희생자 시신을 수습했던 자리였음을 고려해 철거하고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옛 전남청 본관 경관을 가리는 LED 철골 펜스는 철거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옛 전남도청 내외부 보존안이 확정되면 대책위 소속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시민의견을 수렴해 문화전당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옛 도청 원형 복원을 대선 공약화해 차기 정권에서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이뤄지도록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소록도 할매천사’ 다큐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내달 개봉

‘소록도 할매천사’로 알려진 마리안느·마가렛 두 소녀의 헌신적인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음달 개봉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두 소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4월 개봉을 앞두고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시사회에서 6일 공개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윤세영 감독이 연출했고 이해인 수녀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상영 시간 78분 동안 두 수녀가 소록도에서 겪었던 43년간의 삶을 기록영상과 실제 촬영 등을 통해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두 수녀는 1962년부터 2005년까지

43년간 아무 연구도 없는 고흥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살피며 사랑을 실천했다.

간호사였던 두 사람은 구호 단체인 ‘다미안재단’을 통해 소록도에 들어와 공식적인 파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원봉사자로 남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센인들을 보살폈다.

고흥군은 영화 개봉을 계기로 올해도 노벨평화상 추천, 봉사학교 건립 등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두 수녀님이 소록도에 베풀었던 사랑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7-20호

장성황룡행복마을 단독주택(한옥전용) · 상업 · 유치원용지 공급공고

I공급대상 토지

소재지	용도	지번	면적(㎡)	공급금액(원)	공급방법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일원	상업용지	705-1	598.1	263,164,000	경쟁입찰	입찰금액의 5% 이상 (공급금액이 아님)
		705-2	637.1	246,558,000		
		705-3	511.0	197,757,000		
		705-4	500.7	193,771,000		
		705-5	506.8	196,132,000		
		705-6	508.3	200,779,000		
	유치원용지	697-2	1,210.4	352,227,000	추첨	공급금액의 5%
		694-6	590.4	129,888,000		
		694-7	592.2	127,027,000		
		694-8	595.7	127,778,000		
		694-9	623.4	137,148,000		
		693	686.4	152,381,000		
		693-1	433.2	98,337,000		
		693-2	416.3	94,500,000		
	단독주택 (한옥전용)					

※ 각 필지별 세부내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업용지는 접도구역 저촉면적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회 공급은 경쟁입찰 공급과 추첨공급에 의한 공급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입찰(추첨)신청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	개찰(추첨)	낙찰자 발표	계약 체결
상업용지	'17. 03. 20(월) 10:00 ~ '17. 03. 21(화) 16:00	'17. 03. 22(수) 10:00	'17. 03. 22(수) 11:00 이후	'17. 03. 23(목) ~ '17. 03. 24(금) 10:00 ~ 17:00
유치원용지				
단독주택(한옥전용)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 입찰집행관 PC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ndc.co.kr

III공급대상자(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1인 2필지 이상, 1필지 공동신청 가능)

IV입찰(추첨) 신청방법

－ 입찰(추첨)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전자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내에 신청절차(온비드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입찰대상물건 확인 → 인터넷 입찰서 작성 → 입찰참가 준수규칙 확인 → 입찰서 제출완료 →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 → 낙찰(당첨)자 선정)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본인(사업자)명의의 전자거래 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은행용, 증권용 등으로 특정한 용도가 지정된 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인터넷뱅킹용, 증권용) 이용을 위한 무료공인인증서는 입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범용인증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거래 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안내 : http://www.onbid.c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 질문(FAQ)

V분양문의

－ 전남개발공사 : 수신자부담전화 : 080-285-0600 / www.jndc.co.kr

◎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분양관련 문의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 061)280-0642~3

※ 본 공고내용은 장성황룡행복마을 단독주택(한옥전용) · 상업 · 유치원용지 공급공고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